

# 1

## 인문계열 논술고사 (오전)

###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사회과 : 통합사회, 한국지리
	핵심개념 및 용어	도시화, 인간 소외, 공간 불평등, 젠트리피케이션, 상호 연결 능력, 혁신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 (다)에 나타난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각각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라)의 관점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가)

도시화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이 몰려든 도시는 인구 과밀을 해소하고자 고층 건물, 공동주택 등을 지어 공간 이용의 효율을 높였다. 또 반듯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산업, 주거, 상업 등 기능별로 구역을 나눈 새로운 산업단지나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도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은 풍요와 편익을 누리는 한편,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경험하게 되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각자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인간관계가 확산되었고, 이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 인구 과밀에 따른 주거 불안, 교통체증, 범죄 증가, 환경오염 등이 심각해졌다. 그런가 하면 개별적인 문제들이 서로 얹혀 지역 간 혹은 계층 간 격차를 유발하면서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도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실천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 제시문 (나)

24시간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 떨어진다. 편의점의 점원은 손님이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넨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먼저 말을 걸거나 시선을 건네지 않는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언제라도 부담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 둘러볼 수 있다. 실제로 점원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다.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점원의 말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점원의 입장에서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응대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편의점은 어두운 도시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환한 조명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편의점의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거리를 밝혀주고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 안심된다. 일본의 어떤 편의점은 간판 옆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비상시에 사이렌을 울릴 수 있게 한다. 위험에 처하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편의점에 달려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제시문 (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노후한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부가 늘어나고 이전보다 상인과 거주민 중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된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의 여러 대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골목 상권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렇다. 도심 속 어느 후미진 골목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젊은 예술가들과 새로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 골목은 특색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 하지만 골목이 뜨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임대료가 오른다.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이곳을 찾은 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은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대신 그 자리에 고가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지만, 골목의 개성이 없어지고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주거의 면에서는 대중교통의 요지에 고소득자들이 모이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본격화된다. 부유한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게 될수록 그 지역은 유행하는 상점, 카페, 레스토랑이 많아지고, 학교와 공원도 새로 들어선다. 이들은 도심으로 돌아옴으로써 통근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 생활이 제공하는 더 나은 편의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한 특별한 접근성을 누린다. 반면 저소득자들은 주로 주거비 상승 때문에 도심 밖으로 밀려난다. 도심이 임금 상승과 경제적 계층 이동에 도움을 주는 더 나은 구직 기회와 더 좋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이 문제가 된다.

#### 제시문 (라)

도시는 왜 성공하는가? 도시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번성할 것인가? 도시의 내구력은 인간이 가진 사회적 성격을 반영한다. 우리가 가진 상호 연결 능력은 우리 인간 종(種)을 정의하는 중

요한 특징이다. 우리는 집단으로 사냥하고 사냥한 동물들을 공유하면서 인간이란 종으로 성장했다.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도시 생활의 원시적 형태인 집단적 삶은 “인간다운 지능이 발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라고 주장했다. 인류의 본질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는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도시는 관찰, 청취, 학습을 더 쉽게 해주며, 엄청난 혁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도시의 혼잡성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얻는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 흐름을 창조한다. 인터넷은 훌륭한 도구이긴 하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인도의 벵갈루루에 모여 있는 IT 업계 종사자들이 보여주듯이 인터넷은 대면 접촉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결합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 우리 인간은 동료 인간들이 내보내는 청각, 시각, 후각 단서들을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이다.